**시메이소 용수 정원**

시메이소 용수 정원에서는 부지 내 용수로 끓인 차를 마시며 전통적인 일본 가옥과 정원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메이지 시대(1868년-1912년) 교토 출신 의사였던 이토 모토조가 시마바라의 풍부한 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발견하고는 피서를 위해 지은 별장입니다. 사방의 조망이 뛰어나 ‘시메이소(四明荘)’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방이 차가운 용수로 채워진 연못 위에 만들어져 있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집안이 시원합니다. 현재 이곳은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다미 방에서는 매일 수천 톤의 용수가 흘러드는 정원 안 3개의 연못이 내려다보입니다. 물의 온도와 질은 200년 이상 변함이 없습니다. 공기는 항상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되며, 정원에는 사계절 내내 녹음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곳은 2008년에 국가 등록 기념물, 2014년에는 국가등록 유형문화재가 되었으며, ‘금붕어가 헤엄치는 마을’ 일각에 있는 인기 관광명소입니다.